

유방암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

박 영 미* · 이 향 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암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암의 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암에 대한 사망은 전체사망 중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0.1%에서 2000년 23.7%로 3.6%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25%로 증가하여 4명당 1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1).

특히 유방암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 여성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평생동안 8명의 여성 중 1명에서 유방암이 발생하고 유방암 환자 수 역시 매년 1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American Cancer Society, 2001). 국내에서는 1997년 유방암은 여성 암 중에서 위암, 자궁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발생률(11.9%)을 나타내었으나 2000년 14.1%로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16.1%로 여성 암 중 발생 1위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1997, 2000, 2003).

최근 유방암 진단법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기 생존율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윤정환, 조수남, 조용근과 제갈영중, 1996), 유방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충격과 더불어 암의 발생 부위가 여성으로서의 성적 상징물임과 동시에 모성과 양육의 상징물인 유방이라는 사실

때문에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여성의 정서적 건강 및 자아개념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전명희, 1995; 정복례, 1991; Mock, 1993). 따라서 유방암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예방책을 마련하는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욱 강조되며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나 치료과정 중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과정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엄애용, 이은옥, 2004)

간호과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현상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이은옥 등, 1992), 이렇게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시행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서 필요하리라 본다.

최근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간호실무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크게 발전하여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암환자 간호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최선헌 등, 1998). 따라서 최근 연구논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Smith와 Stullenbarger(1995)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의 암관련 간호연구논문을 분석하였고, 국내에서는 임선옥과 홍은영(1997)이 1985년부터 1997년 2월까지 발표된 암관련간호연구중 실험연구25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고, 이후 최선헌 등(1998)이 1980년부터 1998년 2월까지 출판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된 국내 암관련 간호연구논문분석으로 14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출처, 연구설계, 측정도구, 실험연구 및 질적연구의 개념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암간호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오복자(2003)는 후속연구로 1998년 이후 출판된 종양간호연구를 대상으로 종양간호연구의 총체적인 주제와 경향을 확인, 추후 종양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동향을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6년 이후 출판된 유방암 환자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유방암 간호연구의 총체적인 주제와 경향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유방암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유방암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추후 유방암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유방암 관련 연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유방암 관련 연구의 발표년도별 연구출처와 연구설계를 파악한다.
- 3) 유방암 관련 연구의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별 대상자와 중재결과를 분석한다.
- 4) 상관관계와 비교연구의 개념분포를 분석한다.
- 5) 유방암 연구논문의 주제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논문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유방암 관련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논문을 모집단으로, 1976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자DB는 보건연구정보센터(<http://www.richis.org>),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대한간호협회(<http://www.koreanurse.or.kr>)에서 제공하는 논문들로서, 사용되어진 검색어는 유방암, 유방절제술, 유암, 유방종양을 사용하였으며 논문의 제목에 검색어들이 포함된 경우에 논문을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해당되는 연구가 학위논문과 비학위논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학위논문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94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논문의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틀

선정된 논문의 분석틀은 논문분석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분석기준을 조정하였다. 분석기준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2인의 간호학 교수와 사전논의 및 검토를 하였으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발표년도 :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 (2) 논문출처 : 학위논문은 석사, 박사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고, 비학위논문중 학회지는 대한간호학회지와 분야별 간호학회지, 그리고 종양간호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호스피스교육연구지, 경북간호과학지로 분류하였다.
- (3) 연구설계 : 실험연구, 비실험연구, 질적연구, 방법론적 연구, Q방법론으로 분류하였다.
- (4) 연구대상 : 연구대상자는 유방암 환자와 일반인, 일반환자, 기록지로 분류하였다.
- (5) 측정도구 : 생리적 측정도구, 기록자료 및 기록지, 심리척도와 설문지, 시각적 상사척도, 분류척도로 분류하였다.
- (6) 자료분석방법 : 서술통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추론통계(χ^2 , t, F, r), 고급통계(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COVA, 요인분석)으로 분류하였다.
- (7) 실험연구는 사용한 간호중재에 따른 대상자 유형과 중재결과를 분석하였다.
- (8) 상관관계 개념 분포 : 상관관계연구인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개념분포를 확인하였다.
- (9) 비교대상과 비교 개념 : 비교연구인 경우 비교대상별로 비교한 개념을 분류하였다.
- (10) 연구주제 : 연구의 주요개념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상관관계의 경우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연구논문은 분석틀에 의해 분류,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백분율로 통계 처리하거나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논문들, 즉 최근의 자료로서 아직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제공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검색이 불가능한 논문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제한이 있었고, 학회지에 게재된 유방암 관련 연구는 전남대학교 보건연구정보센터(국내 94개 보건관련 학술지 정보제공)에 수록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파악되어진 연구 경향에 대해서 유방암 관련 간호학 진체논문의 연구동향으로 확대 해석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특성

본 연구대상논문 94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논문의 특성은 <표 1-1> <표 1-2>와 같다.

논문의 발표년도는 2000년 이후가 53편(5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5년에서 99년사이가 27편(28.7%)으로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논문은 주로 9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차적으로 논문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방암 관련 연구논문의 출처는 학위논문이 58편(61.7%)로 비학위논문의 수(38.3%)보다 많게 나타났다. 연구설계의 경우 총 94편중 66편(70.2%)이 비실험연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실험연구 17편(18.1%), 질적연구 8편(8.5%)순위였으며, 도구개발연구 2편, Q방법론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84편(89.4%)으로 가장 많았고, 측정도구는 심리적 척도 및 설문지가 72.3%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생리적 측정도구가 13.8% 이용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가 69.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은 생리, 물리적 측정과 면담이 각각 13.8%, 기록지(2.1%)순으로 이용되었다. 자료분석방법은 94편의 대부분이 서술통계(86.2%)와 추론통계(75.5%)를 이용하였으며 regression과 요인분석등의 고급통계를 이용한 논문도 16편(17.0%)이 되었다.

<표 1-1> 연구대상논문의 발표년도, 출처 및 연구설계 (N=94)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발표년도(년)	-94	14	14.9
	95-99	27	28.7
	2000-	53	56.4
논문출처	학위논문	58	61.7
	비학위논문	36	38.3
연구설계	실험연구	17	18.1
	비실험연구	66	70.2
	질적연구	8	8.5
	도구개발연구	2	2.1
	Q방법론	1	1.1

<표 1-2> 연구대상논문의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N=94)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대상자	유방암환자	84	89.4
	일반환자	2	2.1
	일반인	10	10.6
	기록지	2	2.1
측정도구	생리적 측정도구	13	13.8
	기록자료 및 기록지	2	2.1
	심리적 척도 및 설문지	68	72.3
	분류척도	1	1.1
	연구자(면담)	10	10.6
자료수집방법	자가보고	65	69.1
	면담	13	13.8
	기록지	2	2.1
	생리, 물리적 측정	13	13.8
	Q방법론	1	1.1
자료분석방법	서술통계	81	86.2
	추론통계	71	75.5
	고급통계	16	17.0

* 중복표기

2. 발표년도별 연구출처, 연구설계

유방암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발표년도별 연구출처와 연구설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위논문중 박사학위 논문의 출처년도는 2000년 이후가 6편(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은 95년에서 99년 사이에 15편이었으나 2000년 이후 24편(25.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학위논문의 출처를 살펴보면 대한간호학회지가 9편, 중앙간호학회지 9편, 성인간호학회지 6편, 경북간호과학지 3편, 기본간호학회지 2편 등의 순이었다.

비실험연구 66편 중 대부분은 서술적 조사연구(38편), 상관관계연구(18편)였고, 비교연구는 10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험연구는 9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다가(14편), 2000년 이후에 40편(42.6%)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험연구는 90년 이후로 연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10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험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사실험설계 16편, 원시실험설계 1편의 순이었다. 질적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6편과 근거이론 1편, 일상생활기술지 1편으로 나타났다.

3.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별 연구대상자 및 중재결과

실험연구 17편을 대상으로 간호중재별로 연구대상자와 중재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중재로는 운동프로그램(운동적

<표 2> 발표년도별 연구출처, 연구설계

(N=94)

특성	연도	~94	95~99	2000~	실수(%)
학위논문출처					
박사		3(3.2)	2(2.1)	6(6.4)	11(11.7)
석사		8(8.5)	15(16.0)	24(25.5)	47(50.0)
비학위논문출처					
학진 등재 : 대한간호학회지		3(3.3)	3(3.2)	3(3.2)	9(9.6)
성인간호학회지(후보)		-(-)	3(3.2)	3(3.2)	6(6.4)
한국모자보건학회지(후보)		-(-)	-(-)	2(2.1)	2(2.1)
학진미등재 : 기본간호학회지		-(-)	1(1.2)	1(1.2)	2(2.1)
여성건강간호학회지		-(-)	-(-)	1(1.2)	1(1.2)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1(1.2)	-(-)	1(1.2)
중앙간호학회지		-(-)	-(-)	9(9.6)	9(9.6)
재활간호학회지		-(-)	1(1.2)	-(-)	1(1.2)
한국보건간호학회지		-(-)	-(-)	1(1.2)	1(1.2)
경북간호과학지		-(-)	1(1.2)	2(2.1)	3(3.2)
호스피스교육연구지		-(-)	-(-)	1(1.2)	1(1.2)
연구설계					
실험연구		1(1.2)	6(6.4)	10(10.6)	17(18.1)
비실험연구		12(12.9)	14(14.9)	40(42.6)	66(70.2)
질적연구		2(2.1)	4(4.3)	2(2.1)	8(8.5)
도구개발연구		-(-)	2(2.1)	-(-)	2(2.1)
Q방법론		-(-)	-(-)	1(1.2)	1(1.2)

<표 3>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별 대상자유형 및 중재결과

(N=17)

간호중재	중재유형	대상자유형	결과
운동프로그램 (5)	올동적운동요법	유방절제술환자	관절각도지수 높음, 우울 감소, 신체자점수 증가, 스트레스지각정도 감소, 사회적 적응점수 증가
	수중운동프로그램	유방절제술환자	어깨관절기능 증가, 신체자가증상 감소, 자연살해세포 증가, 불안감소, 우울감소
	활보운동	유방암환자 (항암화학요법)	체력증가, 피로감소, 기능상태증가
	운동프로그램	유방암환자 (방사선요법)	심폐기능,어깨관절기능향상,자연살해세포의 활성화 증가
	에어로빅댄스	유방암치료종료	전반적인신체기능증진,
교육프로그램 (4)	자조집단프로그램	유방절제술환자, 유방암치료종료	우울 감소, 불안 감소, 삶의질 증가, 자기초월감증가
	유방암 위험사정	성인여성	정서적 측면의 삶의질 증가
	유방암 위험사정	성인여성	유방자가검진실행 증가
지지적 간호중재 (3)	지지적 간호중재	유방암환자 (항암화학요법)	스트레스반응정도감소, 절망감감소
	유방절제술교육과 배우자지지교육	유방절제술후 추후관리	삶의질 증가
	상호목표설정간호중재	유방절제술위해 입원한 환자	수술후 관절가동범위증가
심상치료 (2)	역동적 심상치료 프로그램	유방절제술후 추후관리	억압된분노 감소, 총t임파구와 보조t임파구수증가, 면역글로불린g함량높음
	심상치료	유방절제술후 추후관리	TypeC 성격특성 감소
마사지(1)	발반사마사지	유방절제술후 1-2일째	기분호전, 통증감소, 이완기혈압 감소, 맥박 감소
재활(1)	통합적재활프로그램	유방절제술환자	신체기능회복, 피로 감소, 삶의질 향상
호스피스(1)	호스피스간호중재	유방절제술환자	우울감소

운동요법, 수중운동 프로그램, 활보운동, 에어로빅 댄스)을 이용한 중재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중재연구로는 교육 프로그램 4편으로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3편이었고, 지지적 간호중재 3편, 심상치료 2편, 마사지(발),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 호스피스 간호중재가 각각 1편 등의 순서였다.

중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프로그램은 유방절제술환자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조집단 프로그램은 유방절제술 환자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적 간호중재에서는 배우자 지지가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유방절제술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상치료는 유방암 환자의 억압된 분노 감소,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 간호중재로, 호스피스 간호중재는 유방절제술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관관계 연구

상관관계연구는 총 18편으로 이에 대한 주개념은 사회적 적응이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개념은 배우자지지, 신체상, 자아존중감, 피로, 희망이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지지, 건강증진행위, 가족지지가 각각 2편이었고 관련개념으로는 각각 신체상과 우울,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방자가검진 이행, 가족지지, 가족기능, 질병의 중증도, 건강증진행위, 유방자가검진지식, 부부친밀도, 성생활만족영향요인, 피로, 가족지지, 삶의 질이 각각 1편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4>.

5. 비교연구

비교연구는 총 10편으로 비실험연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교대상과 비교개념은 <표 5>와 같다.

비교대상에서는 유방암환자와 정상여성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개념으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강도, 암에 대한 공포, 암치료에 대한 지각, 성적 행동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방절제술 환자와 유방보존술 환자의 삶의 질과 성생활, 신체상 및 치료만족도, 미용평가를 비교하는 연구가 2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군과 대조군, 표준항암화학요법군과 자가조혈모세포이식군, 감시림프절 생검만을 실시한 환자군과 액와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군, 수술후 경과기간에 따른 비교, 국내여성과 미국이주 한국여성을 비교한 연구 등도 각각 1편씩으로 나타났다. 이

<표 4> 상관관계 연구의 관련개념분포 (N=18)

주개념(편수)	관련개념
사회심리적 적응(4)	배우자지지, 신체상, 자아존중감, 피로, 희망,
배우자 지지(2)	신체상, 우울
건강증진행위(2)	자아존중감, 지각된건강상태, 자기효능감
가족지지(2)	불안, 절망감, 불편감, 자가간호수행
유방자가검진이행	유방자가검진 지식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질병요구도, 부부적응, 가족대처
질병의 중증도	정기적유방촬영과 규칙적 유방자가검진
유방자가검진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부부친밀도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도
성생활만족영향요인	배우자지지, 신체상, 성행위
피로	방사선치료경과, 정서적 증상, 신체적 증상
삶의 질	배우자 지지

<표 5> 비교대상과 비교개념 (N=10)

비교대상	비교개념	편수
유방암환자/정상여성	생활사건, 스트레스강도, 암에 대한 공포, 암치료에 대한 지각, 성적행동비교	3
유방절제술/유방보존술	삶의 질, 성생활, 신체상, 치료만족도, 미용평가	2
환자군/대조군	유방암관련위험요인	1
표준항암화학요법군/자가조혈모세포이식군	삶의 질	1
감시림프절생검만을 실시한환자군/액와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군	어깨관절기능, 림프부종, 신체자각증상, 일상생활활동수행정도의 차이	1
수술2주후/1개월후/2개월후/3개월후	어깨관절가동범위	1
국내여성/미국이주 한국여성	유방암에 대한 건강신념, 유방자가검진	1

에 대한 비교개념은 유방암 관련 위험요인, 삶의질을 위시하여 어깨관절기능, 림프부종, 신체자각증상, ADL의 차이, 건강신념, 자가검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6. 유방암 연구의 주제

유방암 연구논문의 주제는 중심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는데 상관관계연구의 경우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주요개념을 선정하였다. 유방암 연구의 주제로는 심리/영적문제에 관한 연구가 16편(1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심리/영적 문제의 중심개념으로는 우울이 4편(4.3%)으로 많았고, 신체상이 3편, 스트레스 3편, 분노 2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의 주제

(N=94)

주제	중심개념	편수(%)
심리/영적문제	우울	4
	신체상	3
	스트레스	3
	분노	2
	자기초월감	1
	고통	1
	불확실성	1
	불안	1
	소계	16(17.0%)
대처	사회심리적적응	4
	적응(단계)	3
	성생활/성적행동	3
	극복체험	1
	성격특성	1
	대응양상	1
소계	13(13.8%)	
건강행위/자가간호행위	유방자가검진영향요인	5
	유방자가검진이행	4
	건강증진행위	3
소계	12(12.8%)	
삶의질	삶의질(도구개발, 요인, 관계)	11
소계	11(11.7%)	
증상조절	통증(관리)	2
	건강문제	1
	백혈구감소의 영향변수	1
	오심/구토	1
	수술후 회복	1
	갱년기증상	1
	국소피부온도	1
	소계	8(8.5%)
신체기능	신체기능	4
	심폐기능,어깨관절기능	3
소계	7(7.4%)	
교육요구	교육요구(도구개발)	5
	교육프로그램	1
	정보요구	1
소계	7(7.4%)	
가족기능	배우자지지	3
	가족지지	1
	가족기능	1
	부부친밀도	1
소계	6(6.4%)	
원인지각	유방암 위험요인/인식	3
	암치료의 지각	1
	질병의 중증도	1
소계	5(5.3%)	
피로	피로(도구)	1
	피로양상/피로경험	4
소계	5(5.3%)	
대체요법	민간요법	1
소계	1(1.1%)	
암질병경험	암 체험	1
소계	1(1.1%)	
시간-비용관련	비용-효과	1
	항암화학요법시 시간단축방안	1
소계	2(2.1%)	

그 다음은 대처에 관한 연구가 13편(13.8%)이었으며, 대처의 중심개념들로는 사회심리적 적응 4편(4.3%), 적응 3편(3.2%), 성생활 3편(3.2%), 극복체험 1편(1.1%) 등이 다루어졌다. 건강행위/자가간호행위는 12편(12.8%)으로 유방자가검진 영향요인과 유방자가검진이행, 건강증진행위 등의 개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질은 11편(11.7%)으로 단일개념으로는 가장 많이 종속변수로 다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증상조절이 8편(8.5%)으로 중심개념은 통증, 건강문제, 오심/구토, 수술후 회복 등이었으며, 신체기능은 7편(7.4%)으로 신체기능, 심폐기능, 어깨관절기능 등의 중심개념들이 다루어졌다. 그밖에 교육요구 7편(7.4%), 가족기능 6편(6.4%), 원인지각 5편(5.3%), 피로 5편(5.3%)으로 나타났다으며, 대체요법, 암질병경험, 시간-비용관련 등의 순으로 연구주제가 다루어졌다<표 6>.

IV. 논 의

본 연구는 1976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국내 유방암 관련 간호학연구논문 94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대별 연구문헌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95년부터 유방암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00년 이후가 53편(56.4%)를 차지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27편(28.7%)의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선혜 등(1998)의 국내의 암관련 간호학연구 논문분석에서 1995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만 4년간의 연구가 1995년 이전 10년간의 연구 문헌수와 동일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유방암을 비롯한 종양간호연구는 1995년 이후 증가되고 있으며, 간호계의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암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진단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암 발생률 또한 계속 증가되고 암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실무는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유방암은 2000년 14.1%로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16.1%로 여성 암 중 발생 1위로 나타났으므로(보건복지부, 2000, 2003), 앞으로 유방암 관련연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논문의 출처로는 주로 학위논문이 많았는데(61.7%), 국내암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최선혜 등(1998)과 오복자(2003)의 연구에서 학위논문이 각각 81.2%와 64.9%를 차지하여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간호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의 개설증가와도 비례된다고 본다(오복자, 2003).

비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대한간호학회지와 중앙간호학회지가 각각 9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인간호학회지 6편의 순이었다. 오복자(2003)의 연구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와 성인간호학회지, 중앙간호학회지 순으로 게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최선혜 등(1998)의 연구에서는 중앙간호학회지 게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앙간호학회지가 2001년 창간호가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연구설계는 조사연구 또는 상관관계 연구인 비실험연구가 가장 많았고(70.2%) 그 다음은 실험연구(18.1%)였다. 본 연구에서 비실험연구가 많은 경향은 강현숙 등(1998)의 자가간호연구분석과 이향련 등(2003)의 한방간호 연구동향, 왕명자 등(2004)의 노인간호연구분석에서 조사연구, 상관관계 연구가 가장 많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관련요인, 대상자들의 지식이나 태도, 교육요구도 조사, 심리영역 상태 등의 기초적 조사자료의 내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전체연구 94편중 실험연구는 17(18.1%)편으로 최선혜 등(1998)의 1998년 이전의 중앙간호연구분석에서 실험연구가 20%인 것과 비슷하며, 실험연구는 90년이후로 연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6%를 차지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측정도구에 있어서는 심리적 척도 및 설문지를 많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설계로 비실험설계인 조사연구와 상관관계연구가 가장 많이 이용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의 결과들에 대한 통계처리에 있어서 서술통계와 추론통계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양적연구에서의 많이 사용하는 통계처리방법으로서 자료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회귀분석과 요인분석 등의 고급통계를 이용한 논문도 16편이 되었는데 연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며 추후 연구에서도 이러한 고급통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고 측정도구들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이 추후연구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연구 17편에서 사용된 실험처치인 간호중재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지지적 간호중재, 심상치료와 마사지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거의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의 효과는 대다수가 신체기능증진, 면역력 증가, 삶의 질 증가, 우울감소, 불안감소, 억압된 분노감소, 통증감소 등으로 검정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또한 오복자(2003)의 연구에서 자가간호, 불안, 구강간호, 통증관리, 신체기능, 삶의 질, 오십/구도등을 결과변수로 이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 연구는 사회심리적 적응, 배우자지지, 건강증진 행위, 가족지지, 유방자가검진이행, 가족기능, 질병의 중증도, 피로, 삶의 질 등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는 최선희 등(1998)의 연구에서 삶의 질, 우울, 희망, 불안 등의 개념과 오복자(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피로, 스트레스, 희망, 삶의 질 등의 개념이 많이 연구된 것과 유사하다.

비교연구는 총 10편이 연구되어 비실험연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대상에서는 유방암환자와 정상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가장 많았고, 비교개념으로는 스트레스 강도, 암치료에 대한 지각, 성적 행동, 삶의 질, 신체기능, 건강신념등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복자(2003)의 연구에서 암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위의 차이를 조사하는 비교연구가 가장 많았고 비교개념으로는 성적행동, 유방암 초기검진효과, 삶의 질, 대처, 우울, 암환자인식,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의 개념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방암 연구의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살펴보면 심리/영적문제에 관한 연구가 16편(1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처에 관한 연구가 13편, 건강행위/자가간호 행위(12편), 삶의 질(11편), 증상조절(8편), 신체기능(7편), 교육요구(7편)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영적문제에서는 우울, 신체상, 스트레스, 분노 등의 개념이 많이 다루어졌다. 이는 오복자(2003)의 연구에서 심리/영적문제, 증상조절, 삶의 질, 자가간호행위, 교육요구의 개념 등이 다루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신체·심리 및 사회적으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방암 관련 연구논문들은 유방암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이환된 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는 질적연구에서부터 개념간의 상관관계연구 및 비교조사연구까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신체기능과 사회, 심리적 변수는 간호중재를 통해 일관되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의 간호중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중재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학제적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방암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대상논문은 1976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되고 수집가능한 유방암관련 논문 94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특성과 발표년도별 논문출처, 연구설계, 대상자, 실험연구의 중재효과, 상관관계개념분포, 비교연구의 대상자와 개념분포 및 유방암연구의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방암 관련 논문은 90년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0년 이후의 논문의 발표수가 가장 많았다. 그 중 학위논문은 94편중 58편(61.7%)을 차지하였으며, 비학위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대한간호학회지와 중앙간호학회지로 나타났다.
2. 연구설계는 비실험연구인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가 가장 많았고(70.2%) 그 다음으로는 실험연구, 질적연구 순이었다.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는 1995년 이후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89.4%로 가장 많았고, 측정도구는 심리적 척도 및 설문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자료분석방법은 연구의 대부분이 서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사용하였다.
3. 실험연구는 총 17편으로 간호중재는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지지적 간호중재, 심상치료, 마사지, 재활프로그램 등이었다. 간호중재 대부분은 신체기능증진, 면역력 증가, 삶의 질 증가, 우울감소, 불안감소, 억압된 분노감소 등이 검정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4. 상관관계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적응, 배우자지지, 건강증진행위, 가족지지, 유방자가검진이행, 가족기능, 질병의 중증도, 피로, 삶의 질 등의 개념이 많이 다루어졌다.
5. 비교연구는 유방암환자와 정상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비교개념으로는 스트레스강도, 암치료에 대한 지각, 성적 행동, 삶의 질, 신체기능, 건강신념 등의 개념이었다.
6. 유방암 간호연구주제로는 심리/영적문제에 관한 연구가 16편(1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처에 관한 연구, 건강행위/자가간호행위, 삶의 질, 증상조절, 신체기능, 교육요구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영적문제에서는 우울, 신체상, 스트레스, 분노 등의 개념이 많이 다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방암 환자의 간호중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중재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유방암 간호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학제적 연구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현숙, 김원옥, 현경선, 조현숙, 김정화, 왕명자, 백승남, 원정숙, 정연, 석소현, 이은미, 장정미 (1998). 자가 간호에 관한 연구 동향 및 명제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8(4), 1013-1026.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김문영 (1997). 명상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간호학회지*, 27(4), 923-932.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 (1997, 2000, 2003).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richis.org>).

엄애용, 이은옥(2004). 유방암 절제술 후 환자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조사. *중앙간호학회지*, 4(1), 62-70.

통계청 (2001).

오복자(2003). 국내 중앙간호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중앙간호학회지*, 3(2), 112-121.

왕명자, 박영미, 이명희, 장경화, 이경재, 전상희, 이종율, 유경희, 정태욱 (2004). 국내노인간호 연구동향 분석-지역사회 간호관련 학회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2), 228-236.

윤정환, 조수남, 조용근, 제갈영종(1996). 폐경 전 여성 유방암과 폐경 후 여성 유방암의 비교연구. *최선의학*, 39, 22-29.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병숙, 정면숙 (1992).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논문의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2(3), 271-296.

이종율, 이향련 (2003). 허혈성심질환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 *동서간호학연구지*, 8(1), 89-102.

이향련, 조결자, 강현숙, 신혜숙 (2003). 한방간호 연구동향 분석. *동서간호학연구지*, 8(1), 27-40.

임선옥, 홍은영 (1997). 국내 암환자와 관련된 연구논문의 메타분석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4), 857-870.

전명희 (1994). *유방암환자 삶의 과정적 변화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복례 (1991).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선혜, 남영화, 류은정, 백명화, 서동희, 서순림, 최귀윤, 최경숙 (1998). 국내의 암관련 간호연구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8(3), 786-800.

한국 중앙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02

American Cancer Society (2001). *Cancer facts and figures*. Atlanta: Author.

Mock, V. (1993). Body image in women treated for breast cancer. *Nursing Research*, 42, 153-157.

Smith, M. C., & Stullenbarger, E. (1995).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 1981-1990. *Cancer Nursing*, 18(3), 167-179.

- 분석대상 논문 목록 -

구경애 (1996). *유방암 절제술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인각, 박은영, 함윤희, 류성숙, 이은옥 (2001). 유방암 환자의 자기초월감 증진을 위한 자조집단과정 개발 및 운영 효과. *중앙간호학회지*, 1(2), 217-228.

김남초, 김희승, 유양숙, 용진선, 송민선 (2003). 유방 절제술 후의 질병관련 스트레스 : Q - 방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379-389.

김명애, 이은주 (2003). 화학요법을 받는 일부 유방암 환자의 시간경과에 따른 피로도의 변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1), 97-107.

김매자 (1994). 유방암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4), 652-665.

김미령 (1997). *호스피스 간호중재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 (2003).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유방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순 (2002).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일 (1998). *유방암 수술후 항암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중년여성의 체험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심 (2003). *역동적 심상치료가 유방암환자의 억압된 분노와 면역기능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 학위논문.
- 김은심, 배행자 (2003). 심상치료가 유방 절제 여성의 성격 특성과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 *중앙간호학회지*, 3(2), 103-111.
- 김정은 (2002). 유방절제술 받은 여성과 배우자지지도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욱 (1999). 유방절제술환자의 교육요구 측정도구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채숙, 정면숙 (1984). 유방 절제술 환자의 퇴원 후 신체상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4(2), 75-83.
- 김현주 (2000).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자 (1996). 수도권지역 유방암과 자궁암의 조기검진실천.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가실 (1988). 유방절제술환자와 자궁절제술환자의 배우자 지지경도와 신체상과의 상관관계연구. 이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영희 (2003). 유방암 생존자의 극복체험.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유자 (1977). 유암환자의 제 특징 및 유암에 관한 태도와 그 인식도. *간호학회지*, 7(1), 30-38.
- 박미영 (2003). 유방암 여성의 분노에 관한 인지적 인과구조 모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0). 고위험군 유방암 환자의 치료과정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아 (1998). 유방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경과일에 따른 피로도 및 타액내 코티졸 농도의 변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1998).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유방절제술 환자의 적응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점희 (1996). 지지적 간호중재가 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점희, 이현주, 김현미, 류은경 (1997). 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불안, 절망감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4(1), 147-162.
- 박정돈, 강복수, 이경수 (2004). 농촌지역 여성의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8(1), 49-64.
- 박정숙 (2003). 유방암 치료가 종료된 여성의 삶의 질.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윤 (2002). 유방암 생존자와 정상여성의 성적 행동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미 (1995). 유방암 환자의 民間療法. *대한간호학회지*, 25(3), 419-429.
- 박진희 (2002).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경 (1986). 유방절제술환자의 퇴원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 (1997). 유방암환자와 정상여성의 생활사건과 스트레스강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화 (2004). 유방절제술 환자의 배우자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정희 (1976). 유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실천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숙 (2001). 항암화학요법 실시 시 소요시간 단축 방법에 대한 탐색 연구 : 외래 유방암 환자를 중심으로. *중앙간호학회지*, 1(1), 128.
- 서은영 (1997). 활보운동(rhythmic walking exercise)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들의 체력, 피로, 기능상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진숙 (2000).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백혈구 감소 정도와 영향변수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향숙, 윤정환, 문재동 (2002). 에어로빅 댄스가 유방절제술 여성의 운동시기별 신체기능 변화에 미치는 효과. *중앙간호학회지*, 2(1), 17-26.
- 신경립 (1995). 유방 절제술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체험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5(2), 295-315.
- 심주현 (2004).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경아 (2001). 유방절제술을 받은 기혼여성의 성생활 만족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태사 (2002). 유방절제술후 환자의 교육정보 요구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애용, 이은옥 (2004). 유방암 절제술 후 환자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조사. *중앙간호학회지*, 4(1), 62-70.
- 오지현 (2003).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절제술 환자의 불편감, 자가간호 수행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양숙 (1991). 유방절제술환자의 우울과 신체상 및 배우자 지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양숙 (1996). 수중운동프로그램이 유방절제술환자의 어깨 관절기능, 면역반응 및 정서상태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양숙 (2003). 유방절제술 환자의 교육요구도. 호스피스교육연구지 7, 105-121.
- 유양숙, 조옥희 (2001). 유방절제술 환자의 배우자지지, 성생활 만족도 및 부부 친밀도.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15(1), 148-156.
- 유영희 (1977). 복강내 염증성질환과 유방암에서의 국소피부온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귀옥 (2000). 한국 여성 유방암의 위험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라 (2004).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생존자의 갱년기 증상과 월경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정, 태영숙 (2004). 여성암 환자의 억압된 분노와 삶의 질과의 관계. 종양간호학회지, 4(1), 16-25.
- 윤옥희 (2001). 유방암 고위험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용진선 (1998).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가족에서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성인간호학회지, 10(2), 369-384.
- 이나미 (2000). 유방암 선별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숙, 손행미 (2004).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성인간호학회지, 16(2), 327-336.
- 이명선, 이은옥, 박영숙, 최국진, 노동영 (2003). 치료시기에 따른 유방암 환자들의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종양간호학회지, 3(1), 5-11.
- 이명화 (1994). 운동적 운동요법이 유방절제술 환자의 퇴원 후 적응상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이은현, 신공법, 송미숙 (2004). 국내여성과 미국이주 한국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건강신념과 유방 자가검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4(2), 307-314.
- 이윤정, 엄동춘 (1999). 유방암 자가검진 유무와 질병의 중증도와의 관계연구. 재활간호학회지, 2(2), 225-233.
- 이은영 (1997). 유방절제술 환자의 배우자지지, 자아존중감 및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옥 (2001). 보조적 표준 항암 화학요법에 비한 자가조혈세포 이식 유방암 환자 삶의 질 내용 비교. 종양간호학회지, 1(1), 5-17.
- 이은옥 (2001). 유방암 조기발견 실천을 위한 유방검진 전문가 훈련사업. 종양간호학회지, 1(1), 119.
- 이은주 (2002).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의 피로 경험.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현 (1999). Construct Validity of the Revised piper Fatigue Scale in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대한간호학회지, 29(3), 485-493.
- 이은현 (2000). 유방암환자의 피로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희망의 매개(mediation)작용. 대한간호학회지, 30(4), 857-868.
- 인혜경 (2000). 유방암환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질적인 삶 비교.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희 (2001). 상호목표설정 간호중재가 유방절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8(2), 172-188.
- 장화경 (2001). 발 반사마사지가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통증 및 기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희 (1994). 유방암환자 삶의 과정적 변화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명희, 김용옥, 김매자 (1996). 유방절제술 환자와 유방보존술 환자의 수술후 삶의 질과 생활의 변화. 성인간호학회지, 8(1), 142-155.
- 전진영 (1996). 유방절제술 환자의 신체상, 배우자지지,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원 (1993). 유방절제술환자의 배우자지지와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상관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복례 (1991).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복례 (2002). 유방암 환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지각된 건강상태. 경북간호과학지, 6(2), 119-134.
- 정복례, 김경혜, 박현숙 (1997).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건강문제. 경북간호과학지, 1(2), 31-44.
- 정복례, 서순림 (1997).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성인간호학회지, 9(1), 136-147.
- 정복례, 서순림 (2000). 유방암 환자와 일반여성의 암에 대한 공포와 암 치료에 대한 지각. 경북간호과학지, 4(2), 27-40.
- 정선미 (200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의 오심·

구토와 자가간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연자 (1995). 유방암 발생과 식이습관과의 관련성.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숙, 김성희, 김정순 (2004). 유방암 조기검진수검 및 반복수검 실태와 관련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791-800.

정혜인 (1995). 유방중양수술 환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이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옥희 (1999). 유방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 불안 및 대처 방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옥희 (2004). 유방절제술 환자를 위한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미경 (2003). 간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유방암환자의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 분류연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영란 (2000).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중인 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이 신체기능 및 자연살해세포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영란, 최명애 (2001). 국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486-495.

최연희 (1996). 유방암위험사정이 일 여성의 유방자가검진(BSE) 실행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7(2), 281-293.

최종숙 (1999). 유방자가검진과 유방암검진의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숙 (1991). 유방절제술 환자의 대응양상과 우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인 (2003). 입원한 유방암 환자의 통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영 (2000). 유방암 조기검진효과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현숙 (2002). 유방암 환자의 액와 림프절 절제 정도에 따른 신체적 징후 및 증상과 일상생활활동 수행 정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혜경 (2000). 유방암 환자의 정보요구 사정. *성인간호학회지*, 12(2), 286-295.

Key concept : Breast cancer, Nursing research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Trend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in Korea

Park, Young Mi* · Lee, Hyang Yeon**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see the trends in breast cancer researches in Korea.

Method: We collected a total of 94 articles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and published in Korea from 1976 to August 2004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articles, the journals which published those articles in each year, the research designs, subjects, intervention effects in experimental studies, the subjects and concept distribution in comparative researches and themes of the articles.

Result: 1. Articles published and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have increased since 1990 and picked after 2000. 2. Most research designs are survey and correlation studies which are non-experimental research(70.2%) and next are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researches. 3. In a total 17 articles which are experimental researches, intervention studies which use exercise programs are most(5 articles) and the next are education program,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guided imagery, massage and rehabilitation programs. 4. In correlational researches, concepts such like social-psychological adaptation, partner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family support are treated frequently. 5. Subjects in most comparative studies ar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nd normal women. 6. Most nursing research themes are psycho/spiritual problems, 16 articles(17.0%).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searches related with breast cancer have actively increased and body functions and psycho-social variables have been improved through nursing intervention. Therefore, it seems that more systematic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systematic complement are necessary for future breast cancer nursing

research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Hyang Yeo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320 C.P.: 019-9193-7941
E-mail: leehl@khu.ac.kr*